

인터넷(디지털)에서의 혐오 발언과 대응언어의 방법론적 연구*

언어행위이론과 기독교적 관점에서

조안나(서울신학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혐오 발언의 인터넷 공간과 현실 세계의 경계 모호화: 재현, 복사, 확산
- III. 언어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혐오 발언과 사회
- IV. 기독교 관점에서 혐오 발언의 극복과 대처
- V. 대응언어
- V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6.13>

* 이 논문은 202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사업임 (NRF-2022S1A5B5A16049882).

• ABSTRACT •

A Methodological Study of Hate Speech and Counter Language on the
Internet (Digital): From the Speech Act Theory and a Christian
Perspective

Research Professor, Cho Anna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article is designed to explore the methodological principles of hate speech and counter language on the Internet from the speech act theory and Christian perspective. The hateful, indiscriminate, digital pouring out of speech under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leads to discrimination, exclusion, inequality, and separation between members of society. Targets of hate speech can be hurt by experiencing anxiety, anger, fear, discrimination, and separation, causing social damage. Thus, this article examines the methodological principles of the counter speech through Christian perspective, the speech act theory, and the performative language with social and ethical implications of language.

Key words: Hate Speech, Internet, Counter Speech, Performative Language, Speech Act Theory

I. 들어가는 말

우리는 간혹 일상생활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말고 말로 하자”라고 말한다. 폭력이 주는 육체적 아픔과 정서적 고통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말로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인터넷(디지털)¹⁾에서는 물리적인 폭력이 행사되지 않고 오직 ‘말’만 오가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로 인해 상처와 고통을 받는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언어의 폭력성을 “말이 칼이다”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말이 물리적으로 칼은 아니지만 발화되었을 때 말의 위력은 칼처럼 누군가를 상하게도 또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²⁾ 이는 정서적, 정신적 고통과 상처뿐만 아니라 때로는 육체적 고통을 동반하기도 한다.³⁾ 즉 언어폭력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동’이며 이는 언어는 단순히 소리를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면서 무언가를 행동(압력, 협박, 비하, 비난, 강요 등)함을 포함한다.

인터넷에서의 언어폭력은 혐오 발언이라 말할 수 있다. 혐오 발언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혐오 발언이란 종교, 성적 지향, 장애, 성별 등의 이유로 특정 대상자의 특성을 헐뜯고 비하하는 것이다.⁴⁾ 이러한 언어는 그들을 모욕하고자 의도된 혐오스러운 언어이며⁵⁾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며 상처를 주고, 조롱하며, 비하하기 위한 무기로 써 사용된 말들⁶⁾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의 혐오 발언이 문제가 되는

1) 본 논문에서 인터넷, 디지털, 온라인은 동의적 의미로 쓰임을 밝힌다.

2) 종종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과 혐오 발언으로 인해 고통을 겪다가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3) 우리의 논의는 혐오 발언으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과 상처에 대한 고찰이 아니라 언어적 고찰임을 분명히 한다.

4) Anthony Joseph Paul Cortese, *Opposing Hate Speech* (Westport, Conn: Praeger Publishers, 2006), 1.

5) Jennifer Hornsby, *Normativity, Facts, and Values* (Quodlibet: Macerata, 2003), 1.

6) Richard Delgado, *Words that Wound: Critical Race Theory, Assaultive Speech, and*

것은 디지털(인터넷) 구조와 언어의 특성이 합해져 반복, 순환, 재생산, 재현, 복제, 왜곡, 변이, 삭제, 편집, 익명성, 영구성, 전파력, 광범위성의 특징과 함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조장하고 일으키기 때문이다. 인터넷,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현실의 공간에서 재현되고 퍼지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 아래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고도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혐오 발언은 사회 구성원 간의 차별, 배제, 불평등, 분리를 초래한다. 혐오 발언은 표적 대상(집단)을 ‘반복적으로 비하함으로써 사회에서 그 대상을 배제, 축출, 절멸한다. 혐오 발언은 발언자가 느끼고 있는 혐오, 증오의 감정을 제3자의 동의와 동감을 얻는 것을 지향하므로 제3자의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구조 안에서 더욱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혐오 발언으로 인해 표적 대상은 불안, 분노, 공포, 차별, 분리 등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더욱이 인터넷에서의 혐오 발언은 동일한 입장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담론의 장을 만듦으로써 배타적으로 소통하여 혐오를 견고하게 하는 에코 챔버(echo chamber)의 임무를 수행한다.⁷⁾ 이러한 공간에서(발언자의 측면에서) 혐오 발언은 더는 증오와 비난의 언어가 아닌 사실적인 진술문이나 혹은 사회적 언어로 그 공동체 안에서 간주하는 경향마저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많은 테러 집단들이 혐오 언어를 통해 자신들의 테러 행위를 지지하고 동참하는 구성원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공간(인터넷 사이트, social media)을 활용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유럽연합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혐오 발언에 대응하고자 2016년

the First Amendment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93), 1.

7) Elaner Colleconi, Alessandro Rozza and Adam Arvidsson, “Echo Chamber or Public Sphere? Predicting Political Orientation and Measuring Political Homophily in Twitter Using Big Data,” *Journal of Communication*, 64(2014), 317-332.

〈불법 온라인 혐오 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기준〉(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을 발표했다.⁸⁾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혐오 발언은 하나의 지역사회,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에 간과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인터넷,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혐오 발언과 그에 대한 문제점과 파급 효과, 대처 방안에 따른 국내의 논문은 매우 미비하다. 또한, 이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는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⁹⁾ 따라서 본 논문은 인터넷 공간에서 혐오 발언이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어떻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지 탐구하며 대응언어의 방법론적 원리를 모색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인간사회에서 일상언어의 사용과 효과를 탐구하는 언어행위이론과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혐오 발언이 지니는 언어폭력, 언어공격에 관한 연구는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과 사회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법학, 철학, 신학, 심리학, 인간학, 교육학, 상담학, 인간발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언어폭력, 언어공격에 관한 연구는 주로 화용론에서 다루고 있으며¹⁰⁾ 보나키는 화용론(Pragmatics)의 언어폭력 연구는 크게 3가지 언어행위이론, 공손/불공손 연구, 적합성 이론을 중점으로 연구되고 있다고 진단한다.¹¹⁾ 언어행위이론은 언어의 사용과 효과, 언어에 의한 사회구조와 제도를 탐구하고 이에 따른 사회의 변혁과 개선을 도모하는 학문이다. 때때로 언어는 문자나

8) European Commission, 2016.5.31, European Commission and IT Companies Announce Code of Conduct on Illegal Online Hate Speech, https://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1937_en.htm, 최종검색일 2023.6.18.

9) KCI 논문 검색 결과 본 논문의 주제에 따른 국내 연구 논문은 없었음.

10) 언어행위이론은 화용론의 한 분과이다.

11) Silvia Bonacchi, *Verbale Aggression: Multidisziplinäre Zugänge zur verletzenden Macht der Sprache* (Berlin, Boston: De Gruyter, 2017).

발화 자체로 언어의 수행성을 행사하며 언어가 곧 행위가 되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말에 상처나 고통을 받는 것 역시 언어가 행위가 되어 우리에게 작용함을 내포한다. 더욱이 인터넷 상의 언어는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복사되고 인용되고 확산함으로써 혐오 언어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만일 이를 언어행위이론의 측면에서 탐구한다면 혐오 발언을 근절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언어행위이론을 가지고 혐오 발언을 연구한 세계적인 학자로는 주디스 버틀러, 캐서린 캘버, 레이 랭턴¹²⁾ 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언어행위이론의 통찰을 통하여 혐오 발언을 탐구하고 위에서 제시한 학자들의 견해를 참고하여 혐오 발언의 대응언어의 방법론적 원리를 모색하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II. 혐오 발언의 인터넷 공간과 현실 세계의 경계 모호화: 재현, 복사, 확산

인터넷 공간에서의 혐오 발언은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현실 세계의 혐오 논쟁이나 발언이 인터넷 공간으로 확대되는 일도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혐오 담론이 먼저 생성되었든, 현실 세계에서 먼저 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두 공간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다. 엄연히 인터넷과 현실 세계는 공간의 구분과 분리, 경계가 분명하지만, 우리 삶에서 두 세계의 상관관계와 그것의 영향력은 경계가 모호하다. 무엇이 먼저이든, 무엇이 원인이든 상관없이 두 세계는 서로

12) Judith Butler,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ledge, 1997); Katharine Gelber, *Speaking Back: The Free Speech Versus Hate Speech Debate* (Amsterdam/Philadelphia: Jog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02); Rae Langton, *Speech and Harm: Controversies over Free Spee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업혀있어 공간의 경계선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터넷 공간과 현실 세계의 경계는 모호하다. 혐오 발언의 경우 인터넷 공간에서 채현, 복사, 확산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현실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한국에서 인터넷에서의 혐오 발언이 문제가 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는 2015년 5월, 메르스가 국내에 발병했던 때, “메갈리아” 사이트의 활동이다.¹³⁾ 현재 메갈리아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되었지만, 메갈리아는 남성 혐오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처음에 메갈리아는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내 메르스 갤러리에서 시작된 사이트로 2015년 5월 29일 개설되었으며 메르스 질병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온라인 공간이었다. 메르스 초기 확진자인 두 명의 한국여성이 메르스 확진을 받고도 격리 조치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언론과 인터넷 사이트, SNS, 소셜 미디어에 급속도로 퍼져 나가자 메르스 갤러리의 네티즌들은 이 여성들을 향하여 온갖 욕설과 비방을 하였으며 급기야 한국여성들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까지 이어졌다.¹⁴⁾ 그러나 초기 메르스 확진자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고 여성을 욕하던 남성 네티즌들의 사과나 반성이 없자 그동안 비난과 욕설을 참아왔던 여성 네티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여성들이 받았던 혐오를 그대로 남성들에게 ‘미러링’ 통해 돌려주었다. 이에 메르스 갤러리는 여초 커뮤니티가 되었으며 이들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방식 그대로 남성들을 비하하고 혐오하기 시작했다. 메갈리아 사이트 네티즌들은 여성 혐오 대항활동을 온라인에서만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현실 세계로까지 확산했으며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그들은 여성민우회와

13) 한국의 대표적인 혐오 발언과 혐오 논쟁의 화두는 여성 혐오, 남성 혐오이기에 본 논문의 하나의 예로써 제시한다.

14) 장민지, “디지털 네이티브 여성 주체(Digital Native Fe/male Subject)의 운동 전략,” 『미디어, 젠더 & 문화』 31(2016), 219-255.

더불어 불법 몰래카메라 근절 캠페인을 했다. 또한, 남성 독자들이 중심이었던 맥심 코리아 화보가 여성 납치 화보를 표지로 발행하자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5년 9월호 맥심 잡지는 판매중단, 회수, 폐기되었으며 9월호의 판매수익은 기부 형태로 사회에 환원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소라넷 폐쇄 운동도 메갈리아에서 주도적으로 펼쳤다.¹⁵⁾ 이렇게 인터넷 공간에서의 혐오 발언은 현실 세계로 이어지고 재현, 복사, 확산된다.

반면, 현실 세계에서 혐오 발언이 인터넷으로 재현, 복사, 확산된 경우도 있다. 메갈리아 사태 이후, 1년 뒤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 한 화장실에서 일어난) 여성 살인 사건이다. 그날 34살 한 남성은 화장실에서 1시간 30분 동안 칼을 품고 기다리다가 새벽 0시 33분 아무런 관계도, 일면식도 없었던 20대 여성을 32.5 센치의 주방용 칼로 무자비하게 좌측 흉부를 4차례 찔러 살해했다. 남성의 범행동기 중 하나로 여성 혐오문제가 대두되었다. 남성은 강남역 근처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주점에서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여성 혐오 대응과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특정 남성들에 의하여 남성 혐오 저항 운동이 일어나 순식간에 이 사건은 혐오 논쟁이 되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여자라서 죽었다’, ‘남자는 살아남았다’, ‘남자라서 죽은 천안함 용사들을 잊지 맙시다’의 상 반대되는 메시지를 담은 포스트잇이 부착되었다.¹⁶⁾ 오프라인,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로 이어져 혐오 논쟁과 혐오 저항, 대항 운동으로 일어났으며 온, 오프라인에서 추모 물결이 일어났다.¹⁷⁾

15) 신혜빈, “온라인 여초 커뮤니티에 나타난 젠더의 재구성 그 의미,” 『ATE』 6(2016), 103-136.

16) 경향신문 사회부 사건팀, 『강남역 10번 출구, 1004개의 포스트 잇』 (서울: 나무연필, 2016).

17) 설승은, 2016.05.18, 묻지마 살인 피해 20대 여성 온·오프서 추모물결(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60518159151004> 최종접속일 2023.6.18.

이후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은 해마다 온라인에서 추모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여성 혐오와 여성 혐오 범죄와 문제, 여성 안전 실태에 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¹⁸⁾

이렇듯, 혐오 발언(혹은 혐오 사건)에 대한 문제는 인터넷 공간과 현실 세계를 넘나들며 공간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두 세계 모두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재현, 복사, 확산하여 간다.¹⁹⁾ 따라서 온라인(오프라인 역시)에서의 혐오 발언과 그에 따른 혐오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응언어의 방법론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 혐오 발언과 사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III. 언어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혐오 발언과 사회

혐오 언어는 발언(발화)이 되면 언어의 힘을 행사하고 타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존재 자체로 사회적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언어와 행위를 통해 타인과 사회생활을 하는 존재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상호 간의 의사소통하고 교제하며 사회의 질서와 규범, 법과 원리 원칙을 만들며 생활한다. 즉 인간과 언어와 사회는 불가분리의 관계이다. 우리가 혐오 발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극복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본 논문을 언어행위이론의²⁰⁾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은 이러한 것에 기인한

18) 최민영, 한겨레, 2021.05.15, 강남역 살인사건 5주기, 온라인 추모공간 열렸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5335.html 최종접속일 2023.8.16.

19) 본 논문의 주제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혐오 발언과 대응언어의 방법론적 연구이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혐오 발언과 혐오 논쟁, 혐오문제는 인터넷과 현실 세계의 공간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못한 채로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따라서 본 논문이 살펴보는 혐오 발언에 따른 대응언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 적용 가능하며, 이 역시 경계선이 모호함을 밝힌다.

다. 언어행위이론은 인간과 언어의 관계 안에서 일상생활에서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며 어떠한 효과와 결과를 산출하는지, 언어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언어행위이론은 언어가 곧 행위임을 주장한다. 즉 무언가를 말하는 것은 무언가를 행위 하는 것이다. 말이 곧 행위라는 것은 말이 지닌 내용과 의미가 실제로 수행됨을 말한다. 바꾸어 말해 인간사회에서 언어는 수행력을 지니며 행위의 옷을 입고 실제(reality)가 된다.

우리가 혐오 발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탐구하는 것은 언어의 수행성, 즉 언어가 곧 행위라는 것과 연관이 있다. 혐오 발언으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를 만나 고통에 처한다거나 혹은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혐오 발언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나 언어(혐오 발언)가 수행성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언어는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에 혐오 발언과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언어행위이론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고 혐오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혐오 발언이 언어폭력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이다.

언어학자이자 비교 문학 학자, 문화 평론가이며 예일대 교수였던 쇼샤나 펠만은 그녀의 저서 『문학적인 언어 행위: 돈 쥐앙과 오스틴, 두 언어

20) 언어행위이론의 방법론에 관한 국·내외 논문들이 있으므로 자세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며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서만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언어행위이론의 이론적 방법론적 소개와 논의보다는 본문의 논지에 맞추어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언어행위이론의 방법론이 어떻게 혐오 발언과 사회에 영향을 끼치며,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대응언어) 살펴볼 것이기에 지면의 한계와 논지의 일관성과 부합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언어행위이론의 이론적, 방법론에 관한 설명과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한다.

의 유혹』에서 언어와 몸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녀는 언어행위가 언어가 곧 행위라는 논의보다 한층 더 강한, 언어는 말하는 몸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녀는 우리가 몸으로 수행하는 행위가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며, 말하는 것이 항상 무언가를 수행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것과 몸은 말해진 것을 초과해서 행위를 하는 경우 역시 인정한다. 그러나 몸은 말해진 것 안에서, 말해진 것을 통하여 행위를 함을 지적하면서 언어행위가 육체적 행위가 됨을 주장한다.²¹⁾ 비슷한 맥락에서 랭튼은 언어는 말함이 이루는 행위라고 정의한다.²²⁾ 또한, 혼스비는 혐오 발언은 특정 대상자들의 성, 인종, 피부색 등을 모욕하기 위해 의도되며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을 대상자들에게 직접 행위를 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인식의 언어들을 사용한다고 지적한다.²³⁾ 혐오 발언은 간혹 혐오라는 단어로 인해 증오와 같은 감정의 표현으로 간주 되기도 하지만 사실상(사회적 의미에서) 혐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닌 행위의 문제다. 혐오 발언의 특성은 특정 대상의 특성을 단순히 역겹거나 싫다고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에서 젠더, 계층, 인종, 성향 등에 투사되어 고착되어있는 고정 관념에 대한 발언으로 특정 대상의 사회적 배제와 축출을 목적으로 한다.²⁴⁾ 따라서 혐오 발언은 특정 공동체의 지지와 동의를 받으면서 혐오 대상자들을 명명하고 호명함으로써 그들을 상처 입힌다.²⁵⁾ 말이 폭력이

21) Schoshana Felman, *The Literary Speech Act: Don Juan with J.L Austin, or Seduction in Two Languag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94-110. 더 깊은 논의는 그녀의 후속책 다음을 참고하라: *The Scandal of the Speaking Body: Don Juan with J. L. Austin, or Seduction in Two Languages* (Meridian: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2).

22) Rae Langto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300.

23) Jennifer Hornsby, *Normativity, Facts, and Values* (Quodlibet: Macerata, 2003), 1.

24) Anthony Joseph Paul Cortese, *Opposing Hate Speech* (Westport, Conn: Praeger Publishers, 2006), 4.

25) Judith Butler,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된다.

혐오 발언이 폭력이 된다는 것은 1). 말 2). 말의 행동(의도) 3). 말의 효과와 연관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는 언어의 수행성을 의미하며 언어행위이론에서는 이를 1). 단순발화행위 2). 의미수반발화행위 3). 효과수반발화행위를 말한다. 단순발화행위(말)는 말이 단순히 발화되는 행위이며 문자나 기호, 텍스트를 포함한다. 의미수반발화행위(말의 행동, 의도)는 말의 행위(단순발화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한 말의 내용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지닌 실제적 의미와 의도를 행위 한다. 즉 의미의 행동을 수행하는데 이는 사회의 문화와 관습, 가치, 전통, 규칙, 규범 등을 수반한다. 마지막으로 효과수반발화행위는 의미수반발화행위의 결과 및 효과에 따른 청자의 행동을 말한다. 정리하자면 단순발화행위는 말 자체를 가리키지만 의미수반발화행위는 말의 내용을 수행함으로써 말이 행위가 되며, 효과수반발화행위는 그 말의 대상, 청자가 그 말에 반응하는 행동을 말한다.²⁶⁾ 이를 혐오 발언의 측면에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말/단순발화행위	말의 행동/ 의미수반발화행위	말의 효과/효과수반발화행위
혐오 발언	혐오 발언자(화자)		혐오 발언의 표적 대상(청자)
	- 단순 혐오 발언 (말, 문자, 텍스트 기호)	- 혐오 발언의 수행	- 혐오 발언의 결과

따라서 혐오 발언은 혐오 행위, 혹은 언어폭력이라 할 수 있다.²⁷⁾ 또한,

Routledge, 1997), 12.

26) 랭튼은 혐오발언을 의미수반발화행위로 간주하고 버틀러는 발화효과수반행위 간주한다. 필자는 혐오발언은 의미수반발화행위로 보고 혐오발언의 피해, 결과를 발화효과수반행위로 본다.

이러한 혐오 발언은 사회의 구조와 체제, 관습과 문화 안에서 수용되고 용납되며 용인됨으로 확산하고 재현된다. 어떤 발언이 곧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적 사실 안에서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발언의 반복 인용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버틀러는 언어가 행위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위가 되는 발언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가 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수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²⁸⁾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한번 여성을 혐오하는 발언인 ‘김치녀’를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혐오 언어가 되지 않는다. 이 발언이 혐오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여성을 김치녀라 부르며 비하하고 비난한 역사, 문화, 관습과 이에 동의하고 동조한 무리의 언어의 반복적 인용과 사용에 있다. 즉 사회제도 안에서 하나의 발언이 행위가 되고 영향력을 끼치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사용되었을 때 언어는 의미가 되고 행위가 된다.

IV. 기독교 관점에서 혐오 발언의 극복과 대처

그렇다면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혐오 발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27) 물론 모든 발언이 수행성을 가져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언어행위이론의 창시자인 오스틴은 발화의 불발성과 때때로 효과수반발화행위의 결과들이 의미수반발화행위의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의 상황들에 관한 연구와 분류는 자칫 본 논문의 주제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John Austin, *How to Do Things with Wor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14. 또한, 의미수반발화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이며 그 의도가 누군가를 해치거나 모함하기 위한 고의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언어폭력(행위)이 된다. 혐오 발언은 그 자체로 누군가를 비하하고 모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발화된다. 따라서 혐오 발언은 말의 행위인 언어폭력과 그에 따른 결과를 낳는다.

28) Judith Butler,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ledge, 1997), 27.

할 것은 혐오 발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라기보다 그 언어가 지시하고 있는 대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언어의 사용과 효과는 항상 언어 사용자와 언어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과의 관계 안에서 언어의 수행성, 즉 언어의 영향력을 실행하고 행사하기 때문이다. 사실 기독교의 관점에서 어떻게 혐오 발언을 바라보아야 하며 어떻게 혐오 발언 표적 대상을 대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현실에서 혐오 발언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며 혐오 발언 표적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가에 관한 실천적인 논의에 대한 해결방안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침에 관하여 알려주셨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마22:37~40), 한 소자에게 한 것이 주께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이뤄 나가는 것이다 (마10:42).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의 가치를 통하여 혐오 발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지만,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며 실천하는 일은 현실에서 쉽지 않다. 따라서 혐오 발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독교 공동체가 앞장서서 사회를 재건하고 변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하우워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품과 덕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세상과 타인을 향한 공감과 연민, 포용과 환대의 ‘감정 훈련 공동체’와 ‘언어 훈련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²⁹⁾ 즉 우리가 말(speech)하면서 행위(act)하는 언어를 가지고 바른 의도와 함께(감정) 어떻게 덕(기독교의 가치와 복음)을 세우는 언어-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탐구해야 한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평화를 덕으로 간주했다.³⁰⁾ 평화는 사랑, 화평,

29) Stanley Hauerwas, *Christian Existence Today: Essays on Church, World, and Living in Between* (Durham, N.C: Labyrinth Press, 1988), 104.

30) Wink Walter, *Engaging the Powers*, 한성수 역,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일산:

평등을 수반하는 언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회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라는 발언은 평화의 추상적인 개념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실천적인 모습인 사랑, 화평, 평등을 삶에서 실천할 것을 설교하고 있다. 반면에 평화의 반대는 불평등, 차별, 갈등, 분쟁 등과 같은 의미를 포함한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평화를 덕으로 간주한 것은 사회 공동체를 기독교의 가치 안에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평화의 또 다른 표현인 사랑, 화평, 평등 등을 실천함으로써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이를 통해 세상과 타인을 향한 공감, 연민, 포용, 환대와 같은 감정 훈련을 동시에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호슬리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건전한 공동체를 세우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사랑과 평화, 평등 안에서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³¹⁾

덕의 공동체를 세우며 감정 훈련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언어 훈련 공동체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말은 곧 행위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행동하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관하여 바르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어는 행위다. 거꾸로 말해 행위는 언어의 기본단위다. 언어를 훈련한다는 것은 일종의 바른말, 고운 말, 긍정적인 말 사용하기와 같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위한 일차적인 발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의 사용과 효과, 결과를 기대하고 예상하여 교회 공동체와 사회를 건설적으로 세우며 변혁시키기 위한 언어 사용에 관한 훈련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바퀴벌레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면 이 발언의 문자적 내용은(단순발화행위) “바퀴벌레를 생각하지 마세요”이지만, 이 발언의 효과와 결과는 청중에게 바퀴벌레를 떠올리게 하여 혐오감을 준다. 화자가 정말 “바퀴벌레를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의

한국기독교연구원, 2020), 271.

31) 위의 책, 271.

도가 있었다면 화자는 이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반대로 화자가 “바퀴벌레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명시적으로 말은 하지만(전략적으로) 그의 의도는 청중이 바퀴벌레를 떠올리게 하는 것(혹은 혐오감을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다른 예로 변이 체내에 있을 때는 더럽거나 혐오스럽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변이 체내 밖으로 나와 우리 몸에 닿거나 변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럽거나 혐오스럽다고 느낀다. 이는 언어 사용의 상징과 이미지(시각화), 언어 사용의 효과와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공간에서(혹은 현실)³²⁾ 혐오 발언의 대응언어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V. 대응언어

혐오 발언이 지닌 힘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말 돌려주기(speaking back) 혹은 대응언어의 사용이 필요하다.³³⁾ 이는 언어 논쟁이나 싸움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혐오 발언의 문제를 해소하고 혐오 발언을 하게 하는 사회적 관습과 맥락, 구조와 풍토, 문화와 전통을 바로 잡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흑인을 지칭하는 말로 “검둥이”가 혐오 발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한번 흑인을 가리켜 “검둥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혐오 발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검둥이”는 검은색을 지칭하는 말로 욕이나 비속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흑인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

32) 본 논문의 논의 중심은 인터넷(디지털)에서의 혐오 발언과 대응언어의 방법론적 연구지만, 혐오 발언이 미치는 영향력과 결과는 인터넷 공간과 현실 세계의 경계선이 모호하며 두 세계 모두 상호 간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혐오 발언에 따른 혐오문제를 일으키며 재현, 복사, 확산하기에 본 논문이 주장하는 바와 혐오 발언의 대응언어 역시 인터넷 공간과 현실에서 모두 적용 가능함을 밝힌다.

33) 본 논문에서 말 돌려주기와 대응언어는 같은 의미로 쓰인다.

되었을 때 그것이 혐오 발언이 되는 것은, 오랜 세월, 많은 사람에 의해, 흑인을 비하하는 데 이 언어가 무수히 많이 사용되고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즉 혐오 언어는 언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발언 되는 그 말이 주는 의미에 있다.³⁴⁾ 또한, 혐오 발언은 혐오가 투사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고정관념과 함께 이미 우리 사회의 구조와 법, 규칙과 규범에 자리 잡고 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말이 혐오 발언인지 아닌지를 규정해야 한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이 사회 문화적 맥락을 지배하는 관습과 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이 사회구조에 관여하는 원리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의 맥락을 지배하는 관습과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것이기에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미래에는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뚜렷하게 설명할 수 없다.³⁵⁾ 이는 혐오 발언의 의미수반발화행위를 만드는 관습과 맥락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³⁶⁾ 바로 여기에 혐오 발언의 대응언어, 말 돌려주기의 가능성이 있다. 혐오 발언이 지닌 의도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불평등, 배제, 축출을 목적으로 하는 말은 기독교와 사회의 도덕적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에 이를 간파하여 혐오 발언의 대응언어를 한다면 얼마든지 혐오 발언의 부정적인 사회적 기제와 고정관념, 관습과 문화를 타파하고 건설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테리다는 말의 힘은 과거에 확립된 맥락과의 단절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³⁷⁾ 이는 과거에 사용되던 말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말과 맥

34) Lisa Schwartzman, "Hate Speech, Illocution, and Social Context: A Critique of Judith Butler,"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33(2002), 433.

35) Judith Butler,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ledge, 1997), 3.

36) 위의 책, 3.

락을 단절하여 언어가 지닌 (수행)힘을 무위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언어행위는 일종의 제도관습 (a rite of institution)으로서 사회의 관습과 전통, 문화와 규칙을 따르지만, 그 맥락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³⁸⁾ 버틀러는 혐오 발언이 지닌 사회적, 문화적 기제인 과거의 맥락과 언어 사용을 단절하고 혐오 발언의 대응언어으로써 말 돌려주기를 통해 특정 대상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말의 사용을 용인하는 사회의 관습을 드러내어 이에 저항하고자 한다.³⁹⁾

대응언어의 주된 목적과 기능은 건강하고 건설적인 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다. 따라서 대응언어에 관한 탐구와 교육이 필요하다. 겔버는 말 돌려주기, 대응언어는 혐오 발언의 피해자들이 혐오 발언에 대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적, 물질적, 교육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⁰⁾ 이에 겔버는 제도화된 논변(institutionalized argumentation)으로 대응할 것을 주장한다. 제도화된 논변은 혐오 발언이나 혹은 표현의 대항 표현에 참여하는 자들이 행하는 발언들이 혐오 표현 행위의 의미, 힘, 효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논박하는 것을 추구한다.⁴¹⁾ 혐오 표현의 피해자들이 혐오 발언에 되받아쳐 말하는 것은 혐오 발화자가 제기한 타당성 주장에 직접 대항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37) Jacques Derrida, *A Derrida reader: Between the blind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9.

38) Judith Butler,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ledge, 1997), 147.

39) 위의 책, 13.

40) Katharine Gelber, *Speaking Back: The Free Speech Versus Hate Speech Debate* (Amsterdam/Philadelphia: Jog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02), 1. 대응언어의 제도적, 물질적, 교육적 지원에 대한 논의를 본 논문에서는 다룰 수 없으므로 대응언어의 이론적 방법론적 원리를 탐색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범위를 한정한다.

41) 위의 책, 121.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과제는 대응언어를 어떻게 제도화된 논변으로 만들 수 있는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화자 발언의 진실성을 간파함으로써 제도화된 논변을 만들어 대응언어를 실현할 수 있는 간략한 방법론적 원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혐오 발언의 대응언어를 논의했던 대표적인 학자인 버틀러, 젤버는 혐오 발언자(화자)의 진실성을 간파함으로써 혐오 발언의 불순한 동기와 목적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떻게 화자의 진실성을 알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화자의 진실성을 알아 내기는 어렵다고만 언급한다.⁴²⁾ 우리는 혐오 발언자의 진실성을 의미수반발화행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의미수반발화행위는 언어가 실제로 지닌 의미의 행동, 즉 화자의 의도와 의미를 수행하기에 이를 통해 화자의 진실성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혐오 발언의 대응언어 시작은 혐오 발언자의 의미수반발화행위를 직접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⁴³⁾ 이에 본 논문은 설의 언어행위의 적정조건을 통해 화자의 의미수반발화행위에 담긴 화자의 진실성을 간파하는 대응언어를 제안하고자 한다.⁴⁴⁾ 설은 화자와 청자 간의 담화상황의 맥락에서 바른 의사소통행위가 일어나려면 언어의 수행성은 네 가지의 적정조건(felicity condition)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① 명제 내용 조건 (propositional content

42) 위의 책, 120.

43) 의미수반발화행위는 사회의 관습과 전통, 문화의 지배를 받으며 담화상황의 맥락 안에서 수행된다. 이는 화자의 의미수반발화행위가 사회의 메커니즘과 관념 안에서, 담화가 오고 가는 맥락 안에서 어떤 말을 발화할 때 그것이 누군가를 표적으로 한 혐오 발언에 해당한다면, 청자는 화자의 의미수반발화행위를 간파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을 시사한다.

44) 설의 적정조건은 화자와 청자 상호 간의 언어행위가 관계적이며 인격적인 담화가 오고 가야 함을 수반한다. 근본적으로 수행언어는 사회의 윤리와 도덕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올바른 언어행위는 타인과 사회를 위한 건설적인 담화행위를 만들기 때문이다.

condition), ② 예비조건 (preparatory condition), ③ 성실성 조건 (sincerity condition), ④ 본질적 조건(essential condition)이다. 간단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명제 내용 조건은 화자가 발화함으로써 전달하는 내용으로 발언자의 의도가 담겨 있으며 이는 대부분 약속, 경고, 권면, 요청 등으로 나타나고 발화내용은 미래 사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 예비조건은 발화자의 말과 의도는 그 말을 듣는 대상에게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화자의 언어행위에 대한 결과는 청자에게 유익한 결과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성실성의 조건은 발화자가 자신의 발언에 대하여 신실하게 자신의 발언을 실행하겠다는 의지이며 발화자의 진실성(인격)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질적 조건은 발언에 대한 발화자의 책임감과 의무를 나타낸다. 다음의 예는 화자의 의미수반발화행위를 지적함으로써 대응언어를 하여 화자의 진실성을 간파하는 대응언어이다.

(상황: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 혐오 발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A: “맘충 같으니” (A의 의미수반발행위 실행)

B: “당신은 나를 모욕주기 위해 이 말을 하는군요.” (A의 의미수반발화행위 지적)

A: “그래서?” (암묵적으로 혐오 발언을 한 것을 인정함)

or “아닌데?”⁴⁵⁾

B: [명제내용조건] 약속: “당신이 사과한다면, 사회(법)적으로 대응하지 않겠어요”.

경고: “당신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사회(법)적으로 대응하겠어요.”

[예비조건] B의 말하기는 A를 위한 것

A가 B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회(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45) 만약 A의 의도가 B를 비하하거나, 여성 혐오 발언이 아니었다면 A는 공손하게 ‘아니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B에게 사과했을 것이다.

[성실성조건] B는 A의 반응에 따라 사회(법)적 대응을 할 의지가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B는 A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말로서 상처
를 주지 않아야 함 (B의 진실성이 문제가 될 때 B의 말은 무
효화 되거나 불발될 수 있음)

[본질적조건] B는 자신의 발언에 책임과 의무를 지님

B는 A의 의미수반발화행위를 직접 지적함으로써 A가 B에게 혐오 발언을 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A의 진실성을 드러낸다. 만약 A의 의도가 B를 비하하거나, 여성 혐오 발언이 아니었다면 A는 공손하게 ‘아니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자신의 의도를 B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거나 B에게 사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예처럼 A가 “그래서?” 혹은 “아닌데?”라고 말했다면, 암묵적으로 B에게 혐오 발언을 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A는 자신의 혐오 발언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제도와 구조 속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 혐오 발언은 도덕적, 사회적으로 옳지 않으며 사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는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법적 처벌도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의 의미수반발화행위를 직접 지적함으로써 화자 주관성의 진실성을 간파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혐오 발언의 대응언어로서 기능하며, 이차적으로는 발언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대응언어는 매우 중요하다. 이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B의 태도인데 B는 A의 발언에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예의를 차려 공손하게 말 되돌려주기를 해야 한다.

위의 대화는 간략하게 혐오 발언의 대응언어를 보여준다. 물론 현실 또는 인터넷 공간에서 난무하는 혐오 발언이 위에서 소개한 대응언어만으로 근절되거나 빠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혐오 발언의 수행성의 힘은 혐오 발언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무리, 공동체에

의해 반복적인 사용과 언급, 인용, 재현, 복사, 확산을 통해 커짐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혐오 발언이 시작될 때 처음부터 차단하여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미수반발화행위는 사회의 관습으로부터 힘을 얻고⁴⁶⁾ 관습적이기에 인용적이며 반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용어의 파생적 지위를 확립시키기 때문이다.⁴⁷⁾ 즉 말의 힘은 관습의 인용에서 나오며 반복 인용은 말의 힘을 축적한다.⁴⁸⁾ 따라서 혐오 발언은 혐오 발언의 대상을 지칭하는 이름이나 지칭말로 표현되며(예를 들어 김치녀, 맘충, 검둥이 등) 이것이 반복되면 혐오 발언의 힘이 획득되고 그 이름이 사용될 때 관습과 역사성이 적용된다.⁴⁹⁾ 이름에 포함된 역사가 그 이름의 현재의 의미를 이루며 상처를 주는 이름으로 적용되며 강화된다.⁵⁰⁾ 따라서 혐오 발언은 그들 간의 언어공동체를 구성하여 비방언어를 반복적으로 인용하여 그들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데,⁵¹⁾ 인터넷 공간은 이를 더욱 가중한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쉽게 언어의 인용과 복사, 확산이 가능하므로 혐오 발언을 키우는 온상지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인터넷 구조에서의 혐오 발언은 에코 챔버에 의해 너무나 쉽게 혐오 발언이 실행되고, 재현, 반복, 확장될 수 있기에 혐오 발언이 시작될 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46) Moya Lloyd, *Judith Butler: From Norms to Politics* (Malden, MA: Polity Press, 2007), 112-119.

47) Judith Butler,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ledge, 1997), 38, 49.

48) 위의 책, 51.

49) Moya Lloyd, *Judith Butler: From Norms to Politics* (Malden, MA: Polity Press, 2007), 112.

50) Judith Butler,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ledge, 1997), 39.

51) 위의 책, 52.

VI. 나가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언어행위이론과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터넷에서의 혐오 발언과 대응언어의 방법론적 원리를 모색하였다. 혐오 발언은 단순히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말하기가 아니라 표적 대상에게 분노, 공포, 불안, 상처를 주는 행위다. 이러한 혐오 발언의 기저에는 표적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과 관습의 고정관념이 투사되어 있다. 혐오 발언은 반복적으로 발언 됨으로써 사회에서 그 대상을 배제, 축출, 절멸한다. 더욱이 혐오 발언은 발언자가 느끼고 있는 혐오의 감정을 제삼자의 동의와 동감을 얻는 것을 지향하므로 제삼자의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구조 안에서 더욱 활발하게 일어난다. 또한, 인터넷 공간과 현실 세계는 서로 상호 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두 공간의 경계가 모호하며 혐오 발언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언어행위이론을 통하여 혐오 발언이 지닌 언어의 수행성과, 수행성이 지닌 사회적, 윤리적인 함의를 통해 대응언어의 방법론적 원리를 고찰하였다. 언어의 힘은 언어의 수행성과 연관된다. 데리다와 버틀러는 언어 수행성의 힘은 과거에 확립된 맥락과의 단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언어 수행성의 힘은 화자의 적절성, 즉 진실성에 있다고 주장한다. 화자의 진실성은 화자의 의도와 연관되어 의미수반발화행위를 수행하기에 혐오 발언을 무위화 시키는 대응언어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언어의 수행성이 지닌 도덕적 가치를 따라 혐오 발언의 대응언어를 모색했다. 혐오 발언의 대응 시작은 혐오 대상자를 지칭하는 혐오 호칭을 무위화 시켜야 한다. 혐오 호칭을 무위화 시키려면 대응언어를 통해 화자의 진실성을 지적함으로써 화자의 혐오 발언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발언자의 말하기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여 혐오 발언을 더는 하지 못하도록 봉쇄해야 한다.

참고문헌

- Austin, John. *How to Do Things with Wor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 Bonacchi, Silvia. *Verbale Aggression: Multidisziplinäre Zugänge zur verletzenden Macht der Sprache*. Berlin, Boston: De Gruyter, 2017.
- Butler, Judith.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ledge, 1997.
- Colleconi Elaner, Rozza Alessandro and Arvidsson Adam. "Echo Chamber or Public Sphere? Predicting Political Orientation and Measuring Political Homophily in Twitter Using Big Data." *Journal of Communication*. 64(2014), 317-332.
- Cortese, Anthony Joseph Paul. *Opposing Hate Speech*. Westport, Conn: Praeger Publishers, 2006.
- Delgado, Richard. *Words That Wound: Critical Race Theory, Assaultive Speech, and the First Amendment*.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93.
- Derrida, Jacques. *A Derrida reader: Between the blind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 Felman, Schoshana. *The Literary Speech Act: Don Juan with J.L Austin, or Seduction in Two Languag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 Gelber, Katharine. *Speaking Back: The Free Speech Versus Hate Speech Debate*. Amsterdam/Philadelphia: Jog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02.
- _____. *Speech and Harm: Constroversies over Free Spee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Hauerwas, Stanley. *Christian Existence Today: Essays on Church, World, and Living in Between*. Durham, N.C: Labyrinth Press, 1988.
- Hornsby, Jennifer. *Normativity, Facts, and Values*. Quodlibet: Macerata, 2003.
- Langton, Rae.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_____. *Speech and Harm: Controversies over Free Spee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Lloyd, Moya. *Judith Butler: From Norms to Politics*. Malden, MA: Polity Press, 2004.
- Salih, Sara. *The Judith Butler Reader*.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04.
- Scary, Elaine. *The Body in Pa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W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 Schwartzman, Lisa. "Hate Speech, Illocution, and Social Context: A Critique of Judith Butler."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33(2002):421-441, 2002.
- Searle, John.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 _____. *The Construction of Social Reality*. London: Penguin Books, 1995.
- Walter, Wink. *Engaging the Powers*. 한성수 역.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일산: 한국기독교연구소, 2020.
- 장민지. "디지털 네이티브 여/성 주체(Digital Native Fe/male Subject)의 운동 전략." 『미디어, 젠더 & 문화』 31(2016), 219-255.
- 신혜빈. "온라인 여초 커뮤니티에 나타난 젠더의 재구성과 그 의의." 『ATE』 6(2016), 103-136.
- European Commission. 2016. 05. 31. European Commission and IT Companies Announce Code of Conduct on Illegal Online Hate Speech. https://europe.eu/rapid/press-release_IP-16-1937_en.htm 최종접속일 2023.6.18.
- 설승은. 2016.05.18. 묻지마 살인 피해 20대 여성 온·오프서 추모물결(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60518159151004> 최종접속일 2023.6.18.
- 최민영. 2021.05.15. 강남역 살인사건 5주기, 온라인 추모공간 열렸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5335.html 최종접속일 2023.6.18.

논문투고일: 2023년 05월 30일

심사개시일: 2023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08월 13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언어행위이론과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터넷에서의 혐오 발언과 대응 언어의 방법론적 원리를 모색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 아래 디지털에서 무분별하고도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혐오 발언은 사회 구성원 간의 차별, 배제, 불평등, 분리를 초래한다. 이러한 혐오 발언으로 인해 표적 대상은 불안, 분노, 공포, 차별, 분리 등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독교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언어행위이론을 통하여 혐오 발언이 지닌 언어의 수행성과, 수행성이 지닌 사회적, 윤리적인 함의를 통해 대응언어의 방법론적 원리를 고찰한다. 혐오 발언의 대응 시작은 혐오 대상자를 지칭하는 ‘호칭’을 무위화 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호칭을 무위화 시키려면 대응언어를 통해 혐오 발언자의 진실성을 지적함으로써 화자의 혐오 발언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발언자의 말하기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여 혐오 발언을 더는 하지 못하도록 봉쇄해야 한다.

주제어: 혐오 언어, 인터넷, 대응언어, 언어의 수행성, 언어행위이론
